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00-000067-08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5 가을호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한-캄보디아수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



A vibrant autumn forest scene. The trees are covered in bright yellow and orange leaves, with some red leaves visible. A stone wall runs across the foreground, and a path leads through the trees. The overall atmosphere is peaceful and scenic.

아름다움이 숨쉬는 곳!
경상북도로 오세요

- 2**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 속안 캄보디아 부총리와 공동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 6** 제86회 전국체전 종합 3위 쾌거!
 • 용도 경상북도의 자존심을 되살리다!
- 8** 「독도사랑 ♥ 평화의 메시지」선언
 • 독도의 돌맹이, 꽃, 풀벌레, 우리 겨레의 것 아닌 것이 없다!
- 10**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대구·경북 2005 '성황'
 •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 12** 2005 경북도민의 날 행사 개최
 • 2005 경북도민의 날, 간소한 행사
- 14** 「낙동강사랑」 홈페이지 구축 - <http://www.enakdong.net>
 • 인터넷으로 떠나는 낙동강 1,300리 탐방!
- 16**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
 • 내년부터 혁신도시 건설 착수,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
- 17** 구미지역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허브로 육성
 • 경북도, DGA사 7천2백만불 투자유치 MOU 체결
- 18** 「2005 경북 스타벤처기업」 선정
 • 「2005 경북 스타벤처기업」 3개 업체 선정
- 19**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협회(IOV) 세계총회 안동서 열려
 •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 20** 도정이모저모
 • 경북도·하남성 자매결연체결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 중국 상해에서 「경상북도 명예자문관 총회」 열려
 •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출범
 • 경북의 농·특산물을 TV 홈쇼핑에서 만난다!
- 24** 알아줍시다
- 26** 가 볼만한 곳 - 경주 골굴사 템플스테이(Temple stay)
- 28** 경북의 맛 - 경주 삼밥정식
- 30** 건강 이야기 - 골절을 조심하자
- 31** 도정단신
- 32** 도의회 소식

경북도정 2005 가을호(통권366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이의근 / 편집인 : 윤정길

발행일 : 2005년 11월 10일 / 인쇄처 : 흥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950-3058, 2031 FAX. 956-4926

〈표지설명〉 이의근 도지사는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개최 양해각서 체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양코르-엑스포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공동개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의근 도지사는 10월 17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공식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왓 유적을 무공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돌아보는 방문단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한-캄보디아 수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행사가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 1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공동개최에 관한 논의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한 이의근 도지사는 10월 17일 오후 훈센 총리를 공식 예방한 자리에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한국-캄보디아 수교 10주년을 맞아 국가차원에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의사와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우호증진을 위해 앙코르왓이 소재하고 있는 시엠립주와의 자매결연 등을 제안받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훈센 총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해외로 수출한 '화랑영웅 기파랑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앙코르 설화가 가진 풍부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 캐릭터 등으로 경주엑스포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세계에 캄보디아를 소개할 수 있는 입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영상기술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속안 캄보디아 부총리와 공동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2006년 11월중 캄보디아 시엠립주 앙코르왓 유적 일원에서 열기로

이의근 도지사는 10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속안 캄보디아 부총리와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공동 개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사진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정부는 앞으로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과 마케팅 등 행사 전반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합의했다.

또한 행사는 50일 이내로 캄보디아 시엠립주 앙코르왓 유적 일원에서 2006년 11월중 열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양측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경상북도 방문단은 이의근 도지사와 손규삼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공가 경북전문건설업협회장을 비롯한 경제계인사 등 30여명으로, 앙코르왓 유적 일원의 행사 개최지를 시찰하고, 지역기업들의 현지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웅도 경상북도의 자존심을 되살리다!



경상북도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된 제86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 1995년 제76회 전국체전 이후 10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 1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추락하자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체육계를 중심으로 경북체육 재도약을 다짐하며 노력해온 결과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10년 만에 종합 3위를 달성한 경상북도 선수단 환영식을 10월 25일 도청에서 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고, 내년 김천시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
경상북도 김천에서 만납시다!



독도의 돌맹이, 꽃, 풀벌레, 우리 겨레의 것 아닌 것이 없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침략자 일제를 몰아내고 광복의 새날을 맞이한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국토의 한 가닥인, 독도에 모였다. 이 뜻 깊은 날, 뜻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가슴 가득 담아온 목소리로 외치려 한다.

독도는 우리 겨레의 땅, 태초(太初)부터 영광스러운 우리 국토의 한 자락이다. 정녕 독도는 우리 민족의 땀줄을 달고 태어난 열매이며 가지이다.

예로부터 우리 배달민족은 그 다른 이름을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고 일컬어 왔다. 이때의 흰옷은 순결과 공명정대(公明正大)를 뜻하며 평등과 평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권이 강탈당하고 그 강토가 노략질되어도 손을 땀고 앉아 있는 것이 백의민족의 참 모습은 아니다. 현대에 접어들고도 역사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한 목숨을 내어던져 구국의 대의에 살줄 아는 민족이었다. 3·1운동과 청산리 전역, 일제 36년간의 무수한 항일 저항 투쟁이 그 살아있는 증거들이다.

이제 우리는 엄정한 목소리로 선언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섬 위의 것 이름 없는 돌맹이, 풀 하나, 아침에 피는 꽃, 저녁에 지는 이슬, 밤마다 우는 풀벌레, 그 어느 것 없이 우리 겨레의 것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외치고 선언한다.

독도는 우리의 국토, 피가 통하는 우리 민족의 몸집 일부, 여기 우리는 사무치는 정성으로 이 섬을 지키며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선언한다.

이 섬을 엿보는 어떤 침략 의도와 행동도 단호하게 대체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의 물러설 줄 모르는 각오며, 결의임을 바다밖에 그리고 하늘과 땅 끝에 외치고 선언한다.

2005년 8월 15일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땅!

Dokdo in Korea, We Love Peace

경상북도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 국토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섬 독도에서 이의근 도지사과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선언, “사랑으로 독도를 지키고, 평화로서 국토를 수호”하는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다.



대한민국 지역혁신리더

지역이 바뀌면

경상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대구시가 공동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9월 5일부터 9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성공하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회, 지역혁신협의회 총회 등 9개 주제의 컨퍼런스, 전시 및 문화행사, 시티투어 및 산업시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전시장과 학술대회, 각종 문화행사를 찾은 관람객은 20여만 명으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등 산·학·연·관의 모든 지역혁신 주체들은 물론 일반인의 참가를 극대화한 성공적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문화
산업



나라가 바뀝니다!

Great 대구경북
www.gb.go.kr

관광

U·Gyeongbuk

Colorful



2005 경북도민의 날, 간소한 행사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여, 내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다짐



경상북도는 10월 25일 도청 강당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도의원, 농·어민, NGO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경북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포항의 이용택씨((주)포스코 직원)와 최덕선씨(성주군, 농업) 등 23명에게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여하였으며, 제86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선수단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내년에 김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며 전국체전 대회기를 전달했다.

당초 경북도민의 날 행사를 안동체육관에서 6천여명의 도민들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었으나 상주 참사와 울릉도 태풍피해 등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진행했다.

경북도민의 날은 신라가 지금의 경기도 양주인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명을 격퇴해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10월 23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경상도 개도 100주년인 지난 1996년에 제정되었다.



인터넷으로 떠나는 낙동강 1,300리 탐방 !

경상북도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의 너덜샘에서 안동의 하회마을, 부산의 을숙도까지 1,300리에 대한 생태정보, 지리정보, 관광정보 등을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담은 「낙동강사랑」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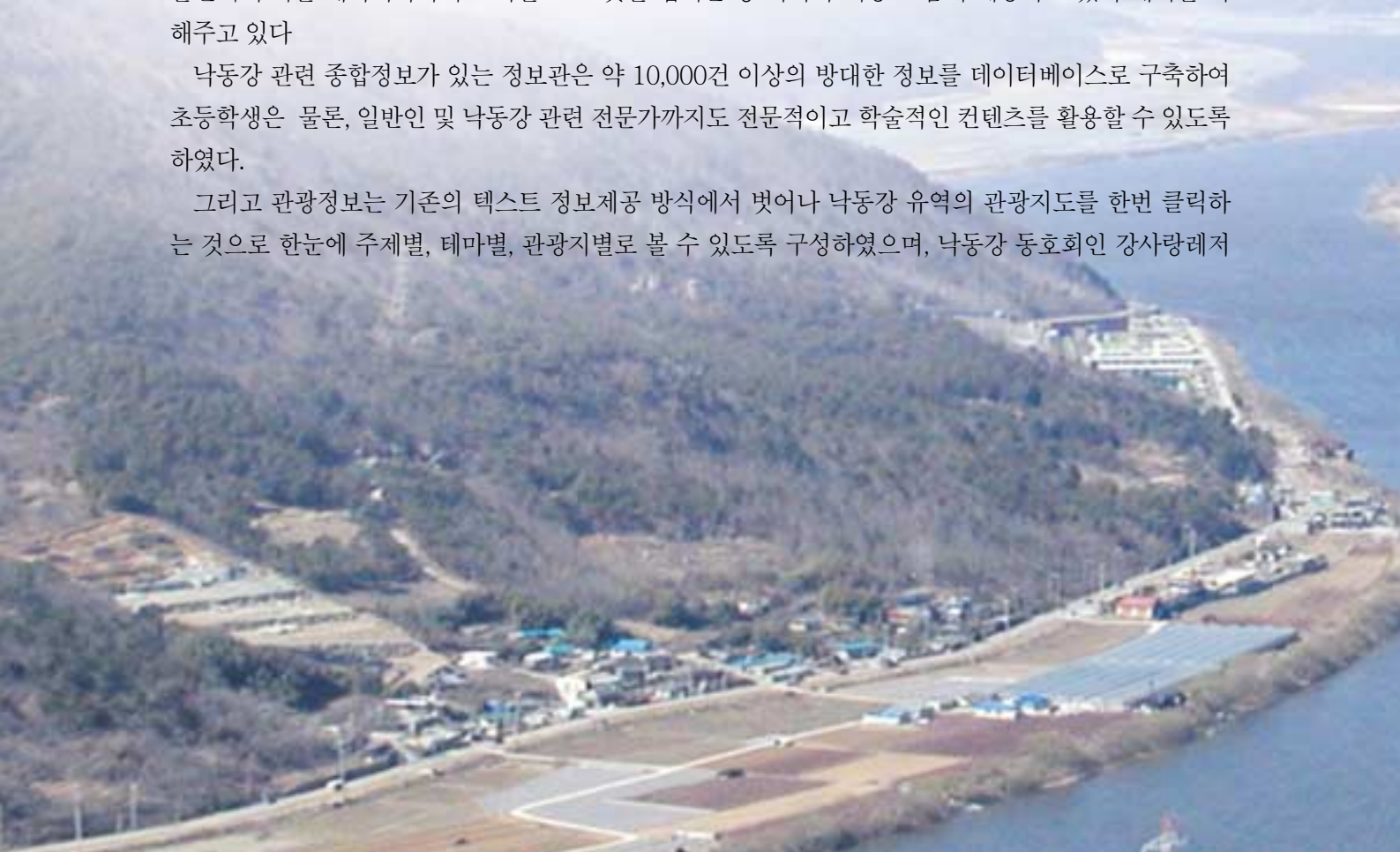
「낙동강 사랑」의 특징은 1,300리 낙동강 전역을 “3D Web GIS”로 구축하여 낙동강 유역의 환경생태, 문화유적과 관광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구현했다. 실제 유역과 동일한 공간적 표현인 3차원 GIS는 2차원방식의 확대·축소·이동의 개념과는 달리, 실제 시야의 이동방향과 관찰자의 위치에 기준하여 고도와 각도를 조절하므로, 사용자가 실제로 낙동강을 탐험하는 듯한 현장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신기술이다.

또한 발원지 너덜샘에서 을숙도까지 일일이 배를 타고, 걸어서 6mm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벋길로’라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직접 가보지 않고도 실제 낙동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간접탐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명소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구간별로 항공촬영하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낙동강의 영상을 유역별 문화유적 정보와 환경생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요소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낙동강에 서식하는 생물이 등장하는 플래쉬 게임과 강과 관련된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이야기도 제공하고 있으며, 낙동강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캐릭터화하여 모자를 쓰고 옷을 입히는 등 아바타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낙동강 관련 종합정보가 있는 정보관은 약 10,000건 이상의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초등학생은 물론, 일반인 및 낙동강 관련 전문가까지도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광정보는 기존의 텍스트 정보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낙동강 유역의 관광지도를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한눈에 주제별, 테마별, 관광지별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낙동강 동호회인 강사랑레저





에는 주제별로 낚시, 탐사, 래프팅 등의 레저공간을 마련하여 그 지역의 동호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낙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해 환경신문고인 낙동신문고를 설치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웹카메라로 낙동강 주요지점의 영상과 강 수위 정보, 댐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재난재해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혁신도시 건설 착수,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

13개 경북도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이의근 도지사는 8월 30일 도청 강당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경상북도로 이전 확정된 13개 공공기관장 및 도 단위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이행기본협약은 정부·도·이전기관 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중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 DGA사 7천2백만불 투자유치 MOU 체결

97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500여명 직·간접 고용효과 기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PDP유리 생산기업인 디스플레이글라스얼라이언스(DGA)사로부터 7천2백만불의 투자를 유치, 9월 5일 서울 소재 한국유리공업(주) 회의실에서 이의근 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사라사와 슈이치 DGA사장, 실뱅 브르댕 부사장, 이남근 한국유리공업(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정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DGA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일본의 센트럴글라스, 프랑스의 상고방사가 각각 30%, 40%, 30%의 지분으로 합작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0월부터 구미 국가제4공단 2만2천여평 부지에 건평 8천여평 규모로 PDP유리 공정라인을 건설할 예정으로, 연간 700억원 매출액과 9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2005 경북 스타벤처기업」 3개 업체 선정

벤처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

경상북도는 도내 300여개 벤처기업 중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기관이 추천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주)투엠테크, (주)에이엔디테크놀로지, (주)지비테크 등 3개 업체를 「2005 경북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 10월 12일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우선권 부여, 각종 지원자금 우선지원, 각종 산·학·연 사업의 기술연구지원과 알선 그리고 벤처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선정업체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주)투엠테크	최상대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왜관제2산업단지	Laser Repair M/C 노광기외
(주)에이엔디테크놀로지	김종오	구미시 공단동 258-5	LCD, CRT
(주)지비테크	윤경희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임베디드 관련제품(EMDK-3000)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세계 110여 개국 180여명의 전통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참가

‘제3회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협회(IOV) 세계총회’가 안동시 도산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려 세계 110여 개국 180여명의 전통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경상북도 안동을 찾았다.

유네스코 산하 비정부기구인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협회(IOV)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되어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85개국의 907개 전통민족문화예술단체 등이 가입해 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문화의 다양성, 특히 아시아적 자기 수양 가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저명인사의 특별강연과 부대행사로 각종 공연과 전시행사가 진행되었으며, 9월 30일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사회에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합의한 안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특히 폐회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각국의 전통 복장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제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경북도·하남성 자매결연체결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상호 축하사절단 방문, 성숙한 관계 발전 다짐

경상북도와 중국 하남성간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8월 18일에는 중국 하남성 공옥방 상무위원(부성장급)을 비롯한 하남성대표단 등 120여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고, 9월 6일에는 황성길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상북도 대표단 31명이 중국 하남성을 방문하는 등 상호 축하사절단을 파견하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행사를 개최,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 더욱 실질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와 하남성은 지난 '95년 10월 23일 이의근 도지사 등 경상북도 대표단이 하남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경북상품상설전시장」설치·운영하였고, '97년에는 「경북의 날」행사를 하남성에서 개최하여 양 지역간 문화교류를 촉진하였으며, 또한 양 도·성간 의회차원에서 '97년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식 가져 문화재위원 39명, 전문위원 60명 위촉, 이중 12명 여성위원 위촉

경상북도는 8월 22일 EXCO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39명과 전문위원 60명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전반과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은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 국·공·사립박물관과 연구소의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구성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중 12명을 여성으로 위촉하여 여성전문가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임기는 2005년 8월 23일부터 2007년 8월 22일까지 2년이다. 


중국 상해에서 「경상북도 명예자문관 총회」 열려
재외교포 청소년 위한 ‘차세대 해외 화랑단’ 육성계획 밝혀



이의근 도지사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명예자문관 총회」에 참석, 경상북도의 해외투자 유치와 국제교류 등 도정에 대한 자문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출신 재외교포 2, 3세 청소년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해외 화랑단” 육성계획을 밝히고, 내년부터 경북명예자문관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해 화랑정신 교육, 전통 예절, 심신수련, 현장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을 실시키로 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총회는 14개국 40명의 경상북도 명예자문관과 초청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하남성간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상해 총영사를 비롯한 현지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오영교 행정부 장관 경상북도 공식 방문
2006 전국체전과 지역숙원사업에 총 170억원 지원 검토 밝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9월 26일 경상북도를 공식 방문하여 도정현안을 청취하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3개 시장·군수와 혁신 및 지역현안사항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오영교 장관은 이의근 도지사로부터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2006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교부세 120억원과 지역숙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출범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이의근 도지사는 9월 2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상북도로 오는 공공기관의 입지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정부지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의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도지사가 10명을 추천하고, 이전기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로 10명을 추천하여 구성하였다.

위촉장 수여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방법, 평가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상북도, 행정혁신!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 행정자치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 MOU 체결


경상북도가 지난 9월 5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수준 진단 결과 혁신의지와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9월 21일 정부종합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의근 도지사,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지방위원 등 중앙부처 지방행정혁신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 앞으로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북의 농·특산물을 TV 홈쇼핑에서 만난다! 12월까지 (주)농수산홈쇼핑 통해 전국 안방시장 공략

경상북도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E-mart 등 대형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한 직판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새로운 유통경로로 각광받고 있는 TV홈쇼핑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식품 전문 TV 홈쇼핑사인 (주)농수산홈쇼핑을 통해 지난 8월 29일 안동 산사과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9월 3일 도청 앞마당에서 (주)CJ홈쇼핑을 통해 경북특산물전 현지 생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12월말 까지 (주)농수산홈쇼핑 채널에서 경북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홍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영상위원회 설립한다!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경상북도는 전통문화유산이 잘 보전되어 창작소재가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촬영여건이 좋은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영상물 로케이션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영상위원회를(Film Commission) 설립키로 했다.

경상북도영상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최고의사결정체인 이사회, 영화감독, 방송PD, 영화배우, 탤런트,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 행정, 경찰, 소방, 철도, 군부대, 대학, 병원, 박물관 등 로케이션지원협의체 등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 10인 이내로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여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 이를 실무적으로 담당할 사무국 요원을 채용하여 상반기 중에 영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분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발기인 총회 개최

경상북도는 9월 22일 경북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이의근 도지사, 김광원 국회의원, 김용수 울진군수, 포항공대 총장 등 발기인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설립자본금 2억원을 경북도와 울진군이 각 1억원씩 출연키로 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33억원을 투자하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부지 1만평, 건물 1,800평으로 건축되며, 연구실험동, 파일럿플랜트동 등 주요 연구시설에 첨단 장비가 구축되어 우수업체 유치, 연구개발, 장비지원, 벤처기업 창업 및 보육사업 등을 통해 기존 해양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해양심층수, 해양신소재산업 등 해양바이오분야의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선다. 



사진전사(傳寫)방식 신(新)여권발급 개시

도청접수는 3일, 시·군청 접수는 6일내로 발급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사진부착방식」에서 선진화된 「사진전사(傳寫)방식」신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여권 제도

- 여권업무처리 대상기관 : 도 산하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시·군으로 제한
- 일반여권 유효기간 : 10년으로 확대 (단, 18세 미만자는 5년 이내로 제한)
- 현행 유효기간 연장제도(고무인 날인방식) 제도 폐지 :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구여권에 한하여 5년 이내 유효기간의 사진전사방식 여권을 발급하며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
- 여권발급 수수료 : 일반 복수여권 10년 55,000원, 5년은 47,000원
: 일반 단수여권 1년 20,000원, 기재사항변경은 5,000원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빠짐없이 기재 할 것 : 신청서 기재 부실로 기계 오작동, 신원조사 미회보 처리 등 여권발급 지연사례 발생
- 사진전사방식 여권사진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온 여권규격 사진 (사진크기 : 가로35mm 세로45mm, 얼굴길이 : 25mm~25mm) 사진 바탕은 흰색, 열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고, 자연스러운 피부색 사진
-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하며,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하고, 영문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
- 여권 명의인(법정 대리인)의 서명 : 여권발급신청시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도장(인장) 날인은 불가능하고, 신청서 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傳寫)되므로 동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소지인의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대신서명 가능)

신여권 발급은 사진 전사 스캔 인식에 따른 접수 시간의 지연과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으로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가 강화되어 판독 및 감식 기능이 추가 되는 등 구여권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도청접수는 3일, 시·군청 접수는 6일내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양해하시고 여권 발급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군청 또는 도청민원실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부서 : 총무과 053-950-2992)

2005년산 공공비축제미곡 매입계획 확정

경상북도 55만5천석 매입키로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공공비축미곡 운용방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정부안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55만5천석(2,776천 가마/40kg)을 매입키로 했다.

매입방법은 농가(포대벼) 및 RPC를 통한 산물벼로 매입키로 하고,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단일)가격을 적용하되 「쌀소득보전직불제」목표가격(17만원/80kg)의 80%인 13만6천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2006년 1월 정산하고 RPC를 통한 산물 매입은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인 산지 쌀값으로 매입한다.

매입기간은 RPC를 통한 산물매입은 10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직접 포대매입은 10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 농산과 053-950-2273)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에게 10~12월 사이에 필히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10월과 11월을 '집중접종시기'로 정하였다.

도내 25개 보건소에서는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우선접종권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총 494,680명(무료 295,725명, 유료 198,955명)에게 오는 12월까지 예방접종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50호)

- 65세 이상 노인, 만성 심폐질환자, 집단시설 수용자
- 만성질환자 (당뇨병, 만성심부전, 암환자, 만성간질환자)

■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권장대상

- 생후 6~23개월 영유아 (2004년부터 권장)
- 임신부, 50~64세 인구 (2003년부터 권장)

■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

- 사스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2003년부터 권장)
- 닭·오리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2004년부터 권장)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053-950-2427)

나를 찾아 떠나는 산사(山寺) 여행, 템플스테이

불교 전통무술 선무도(禪武道) 체험하려는 내·외국인 발길 분주

사찰을 찾아 수행자들의 삶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웰빙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도내에도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찰이 있다. 경주에서 보문단지를 지나 4번 국도를 따라가다 감포에 못 미쳐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골굴사가 바로 그 곳이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유일의 석굴사원으로 6세기 인도의 광유성인이 마애여래불과 석실을 지었다고 하니 불국사보다 200년을 앞서 창건된 유서깊은 사찰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에 새겨진 마애여래불(보물 581호)이 인상적인 곳이다.

이 곳은 옛 신라의 화랑들이 연마했던 불교 전통무술인 선무도(禪武道)의 본산 도량으로 근래 들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중국의 소림사처럼 스님들이 무예를 연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수련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이 채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산사의 아침은 은은한 목탁소리로 시작한다.

졸음을 떨치며 들어선 법당에서의 새벽예불,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종교적 의미라기보다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다. 예불이 끝나면 결과부좌 상태로 명상하는 좌선과, 경내를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행선이 1시간 정도 이어진다.

아침식사는 6시 50분, 평일에는 공양간이라 불리는 식당에서 준비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뷔페식






으로 자신이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다. 특별히 일요일 아침에는 발우공양이라 하여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의 일부분으로 여겨온 불교의 전통적인 식사법을 경험할 수 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선무도 수련과 강의는 아침식사 이후 오전수련과 저녁식사 이후 오후수련이 진행된다. 멋진 품새로 시범을 보이는 스님들처럼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작을 익혀야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명상과 요가를 통한 정신수양에 중점을 두고 유연공, 오체유법 등 신체 각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체의 균형과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수련을 실시한다.

한편 이 곳에서는 울력이라 하여 농장 가꾸기, 경내 청소 등 간단한 노동을 누구나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오후 10시에는 일제 소등하고 취침해야 하는 등 템플스테이 기간 중에는 수행자들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골굴사 템플스테이 1박 2일 체험코스 비용은 1인당 3만원, 외국인의 경우 통역 등 여러 가지를 배려해 1인당 40달러이다. 단기체험코스 외에 장기입산수련도 가능하다.

번잡한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시는 분들께 산사로 떠나는 템플스테이를 권한다. 

템플스테이 문의 054-744-0711, 홈페이지 www.golgulsa.com, www.sunmudo.com






집이며, 생선구이나 불고기라는 이름을 내놓은 집 등 식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찾는 이의 구미에 끌리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쌈밥 상차림을 보면 먼저 음식의 종류에 놀라게 된다. 상추, 비타민, 고추, 썩갠 등 싱싱한 생쌈 채소에 치커리, 케일, 근대, 양배추, 다시마, 깻잎, 머우잎 등을 삶은 숙쌈 채소 한 접시도 같이 차려진다. 그 외에도 묵은 김치, 고들빼기, 오이소박이, 물김치 등 다양한 김치와 멸치무침, 조기구이, 각종 나물류, 된장찌개, 콩비지찌개가 곁들여져 진수성찬이 된다.

갓은 야채에 밥을 얹고 쌈장을 듬뿍 얹어 한 입 크게 먹으면, 그 맛은 별어진 입만큼이나 즐겁다. 또한 쌈장 이외에 멸치통말이 젓갈, 밴댕이 젓갈을 쌈밥에 얹어 먹는 맛이란 그야말로 일품이다.

푸짐하고 맛갈스럽게 차려진 쌈밥정식 상차림... 경주에 들르신다면 쌈밥 골목을 한 번 찾아볼 일이다. 

평소 많이 걷고 바른 자세로 활동하면 뼈를 곧고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었다. 그러나 오래 살수록 병은 많아진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을 지탱해 주는 뼈에 구멍이 생겨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지고 재생이 안 되어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골다공증과 골절이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발생과정은 밝혀내지 못했으나 뚱뚱하고 편식이 심해서 칼슘섭취가 적고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잘 발생한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여자의 경우 40대 이후 폐경을 전후해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30대 이후에도 우유나 미역, 다시마를 계속 먹고 칼슘이 많이 든 멸치나 각종 해산물을 고루 먹어야겠다. 나이가 많아져서 허리가 굽는 것도 편식을 피하고 칼슘 섭취에 신경을 써서 끼니마다 우유를 마신다면 예방할 수 있다. 우유는 어린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도 많이 걷고 바른 자세로 활동을 계속해서 뼈를 곧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무릎이나 허리가 관절이 좀 아프더라도 스스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년 이후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새벽 산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쯤 목욕을 한 후 관절을 풀어주고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지나치게 체중이 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것은 비만증으로 체중의 압박 때문에 생겨나는 수가 많다.

갑자기 지나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년 이후에도 능동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은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좀 아프거나 귀찮다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더욱 좋지 않다.



가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경상북도는 고장난 농기계를 수확기 이전에 수리 봉사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수리 불편을 덜어주고 적기영농을 실현하고자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5년 가을철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했다. ☞

재해쓰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약체결

경상북도는 수해 등 각종 재해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재해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건설폐기물협회, 한국폐자원재활용 수집협의회, 경북재생용재료수집판매협동조합,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등 5개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지난 8월 11일 “재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홈페이지 새단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홍보와 네티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쌍방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와 블로그 신설 등 홈페이지 (<http://www.cultureexpo.or.kr>)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물가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 16개 시·도 물가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물가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지난 '98년도부터 8년 연속 물가관리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

「관리직 여성공무원 혁신 연찬회」 개최

경상북도는 8월 30일부터 8월 31까지 양일간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포철산기 수련원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관리직 여성공무원 혁신연찬회」를 개최, “여성리더 새롭게 태어난다 : 가치혁신 여성리더 과정”을 주제로 도내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약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리더로서의 성장잠재력과 혁신역량 개발과 리더십 훈련을 가졌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참가, 1,700만불 판매 성과

경상북도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에서 개최한 「2005 프랑크푸르트 추계 소비자 박람회」에 도내 25개 우수 공예업체를 참가시켜 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700만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

경북 농산물 브랜드파워 전국 상위!

경상북도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농림부에서 주최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05 농산물파워브랜드 대전」에서 파워브랜드로 선정된 15개 품목 중 국무총리상(금상)에 「성주참외풍경», 은상인 농림부장관상 2점에 「의성마늘», 「안동사과」 등 3개 브랜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도정질문, 현지확인, 안전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전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9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최,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안전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펼치고, 9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3건의 안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특별위원회,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종철(영천), 간사에 김기홍(영덕)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효(경주), 간사에 임원식(울진)의원,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응규(김천), 간사에 이상태(울릉)의원이 각각 선출 되었다.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종철(영천), 간사 : 김기홍(영덕)
- 위원 : 양재경(청도), 황상조(경산), 김준호(영천), 이우경(경산), 우성호(영주)

■ 노인 및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상효(경주), 간사 : 임원식(울진)
- 위원 : 장하숙(비례대표), 김석호(구미), 권준택(칠곡), 정상진(예천), 김기대(성주)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응규(김천), 간사 : 이상태(울릉)
- 위원 : 정무웅(울릉), 김진기(영덕), 신영호(의성), 한혜련(비례대표), 이현준(예천)

상임위원회 현지확인 활동 전개

첨단산업시설 방전방향 모색



기획과학위원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산 경북테크노파크와 영남대학교 R&D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현황을 청취하고, 구미 디지털정보산업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하여 단지조성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 등을 파악·분석하는 등 현지확인을 통해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추진실태를 파악했다.

재해·재난 대응체계 점검, 태풍 「나비」피해지역 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9월 5일 안동소방서를 방문하여 재해·재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에 위치한 「가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상습침수로 인한 반복 피해지구의 우선해소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9월 6일에는 「청도~경산간도로 확장공사」 현장과,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천시 모암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14호 태풍「나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울릉도를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였다. 🏡



환경친화마을 조성 현장 방문

교육환경위원회는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분석하기 위해 9월 7일 환경친화마을 조성,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정보센터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했다. 🏡

영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장 등 현지확인

경제문화위원회는 전통사찰과 서원에 대한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 방안등을 모색하고자 9월7일 영천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장과 은해사 등을 찾아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현지확인

행정사회위원회는 9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지역에 대한 오십천 명소화 사업현장과 지품면 원전리 지내 오지개발사업 현장과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소재한 포항여성문화회관과 포항의료원내에 추진중인 도립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태를 확인했다. 🏡

청도복숭아시험장 등 현지확인

농정위원회는 9월 9일 청도복숭아시험장과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를 방문, 업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





김정자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경북도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면서 반대의견도 적극 수용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지역주민의 합의를 만들어 낼 방안은, 원전이 입지한 경주와 울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향, 동해안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울진공항의 조기완공 위한 방안과 지역민간항공사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외국인 농촌주부 지원체제 수립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권종연 의원 (기획과학위원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도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소 및 시험장을 생물산업 육성 위한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인력 확충 및 예산증액 등 지원을 확대할 의향, 노인관련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노인시설 확충계획, 노인복지예산을 증원할 의향,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장대진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으로 2008년 이후 외국산 종자를 이용하는 농산물에는 품종사용료(로열티)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북도에서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의향,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추진방향과 일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이 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할 방안, 소나무 재선충 방지 위한 방제전문인력 충원 계획 등을 질문했다.



김응규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최근 각종 지표에 의하면 우리 도의 정보화 현실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정보격차해소 방안, 지역특화발전특수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위해 가칭 “경상북도지역균형 발전기획단”을 테스트포스팀으로 설치할 의향, 2006년 김천에서 치러질 제87회 전국체전의 지원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하여 유치 희망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중재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석호 의원(행정사회위원회)

낙동강유역의 홍수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언 독의 해체와 낙동강 하구언 독으로 인해 높아진 하상의 준설을 제안,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유입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 개발정책은 있는가,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이 서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협약을 체결할 의사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박종욱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시대 변화에 맞추어 국가 유관기관을 광역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할 것을 건의할 의향, 광역단체의 기능이 기초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도 자체에서 경로연금 지급연령을 높여서 지급액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 방법은,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경북도의 입장 등을 질문했다.

2005년도 의원연수회 개최

효율적 정책실현 위한 의회 대응 방안 등 활발한 업무연찬 활동

경상북도의회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문경관광호텔에서 도의원과 사무처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경상북도의회의원 연수회」를 개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문경 주변의 석탄박물관과 철로자전거 현장 등을 둘러보는 등 미래지향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수시2학기, 정시 신입생모집

1. 모집기간 - 수시2학기 : 2005. 10. 17(월) ~ 2005. 12. 7(수),
정시 : 2005. 12. 26(월) ~ 2006. 1. 27(금)
2. 응시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 2) 교육법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모집방법 : 인터넷(<http://www.gpc.ac.kr>), 우편, 방문 접수
4. 모집인원

계열 · 학과	주야	모집인원	계열 · 학과	주야	모집인원	
자동차소방	주	25	토 목 과	주	19	
소방방재전공	주	13	정보통신과	주	30	
자동차전공	주	21	행정복지 계 열	지방행정전공	주	22
디지털디자인과	주	19		야	15	
행정사무전산과	야	15	사회복지전공	주	27	
뷰티디자인과	주	27	합 계		252	
생활체육과	주	19				

경북도립 경도대학 학생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

- 수시모집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입학금 면제)
- 공무원 특채 실시(입용 후보자 장학금 지급)
 - + α 공무원 양성 시험대비반 운영(전원 기숙사 입사)
- 사립대학 1/3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
 - 행정복지계열 1,077,000원, 그외 학과 1,299,000원
- 전체 입학생의 80%이상 장학금 수혜자
- 입학동시 취업보장제도(책임 취업 인증제)
 - 경상북도 지원 중소기업과 연계 매년 90%이상의 높은 취업률
- 최심식 · 최첨단 실험실습실 및 기숙사 원비
 - 한학기 기숙사비 430,000원(관리비 150,000원, 식비 280,000원)
-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우수대학 5년 연속 선정
- 인근지역 매일 통학버스 무료운행(서울 · 대구지역 매주 운행)



동양 최대규모의 경상북도수목원 개원



동양 최대규모의 경상북도 수목원이 개원했다.

경상북도는 9월 23일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소재 경상북도수목원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조연환 산림청장, 이상희 전내무부장관,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원 개원식을 가졌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1-23번지 평균해발 630m의 고산 지대에 위치한 경상북도수목원은 목본 694종 85,493본, 초본 816종 93,733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6년 55ha의 면적으로 출발한 이후 확대 조성되어 현재 3,222ha(974만6,550평)로 면적단위로는 동양 최대규모 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수목원과 연계하여 면적 300ha(90만평)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 림을 조성키로 하고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추모의 숲」을 추진한다.

관람문의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1-23번지
- 연락처 : TEL. (054)262-6110
FAX. (054)262-6111

관람시간

- 평일
 - 하절기(3월~10월) 10:00 - 17:00
 - 동절기(11월~2월) 10:00 - 16:00
- 휴일 : 평일과 같음
- 휴관일 : (미정)

